

제 2기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 Global Venture CEO Camp를 가다

벤처 최고경영자만을 위해 구성된 협회의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이 올해로 2기를 맞이하였다.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2기 과정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큐슈와 동경을 방문하는 해외 워크샵 일정을 진행하였다. 3박 4일의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벤처 CEO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 비즈니스 체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돌아온 마음 커뮤니케이션 박진만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_ 박진만(마음커뮤니케이션 대표)

2006년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엘앳택 이태금 대표를 필두로 20여 명의 벤처CEO아카데미 회원들과 스태프들이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회원들의 얼굴에는 이번 일본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 새벽부터 서둘러 짐을 싸 흔적들이 역력했다. 일본에 사업차 먼저 와 있던 나는 아카데미가 개원한 후 세 번째의 만남이라 서먹서먹한 가운데 전에 인사를 나누었던 몇 분과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는 서둘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탔다.

일행의 첫 번째 행선지는 큐슈 쿠마모토(熊本)에 있는 쿠마모토성이었다. 쿠마모토성은 오사카성, 나고야성과 함께 일본의 3대 명성 중 하나로, 일명 까마귀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성 전체가 전부 까만색으로 칠해져 매우 인상적인 곳이었다. 뒤이어 일본 최고의 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전사 공원도 방문하였다. 정원에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는데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 최랑규 대표는 유독 물이 맑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였다. 그 궁금증은 금방 해소되었는데 맑은 물의 원천은 바로 우물이었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정원이 한 곳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날이 저물면서 일행은 서둘러 거대한 화산지대로 유명한 아소로 향했다. 아소에는 화산 분화구로는 세계 최대의 칼데라가 있었다. 직접 화구 안쪽을 볼 수 있는 날은 연중 100일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들 일행은 운 좋게 화구를 직접 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며 회원 간의 서먹함을 조금씩 녹여갔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일행들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꽤나 친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일행들을 호기심 많은 소년들로 만들어주었고, 그에 순응하면서 차츰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어슴푸레 드리워진 저녁노을이 참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아소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다.

다음날 사루마와시 원숭이공원을 관람한 우리는 일본에 와서 가장 뜻 깊은 행사인 NBC 교류회 및 상담회 행사장으로 향했다. 이번 교류회는 캠퍼스21 조성주 대표와 내가 회사 소개 및 사업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긴장된 가운데 먼저 조성주 대표가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현재 일본 동경에서 미스터카드 신주쿠 점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탓에 일본시장에서도 충분히 우리 회사의 사업모델과 제품이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었다. “곤니찌와 와따시와 박진만데쓰, 오네가이시마스”란 말로 시작된 발표는, 일본 경제인들에게 콜라병에 쓰이는 소재인 PET를 응용해서



▲큐슈 쿠마모토성 방문



▲아소 화산지대에서



▲아도 웨이즈 간담회 기념사진

특허를 가지고 제조하고 있는 미스터카드라는 제품과 아직까지 일본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인쇄 업종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인 미스티에이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교류회가 끝난 후 만찬장에서는 통역을 담당해준 재일유학생단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과 시호크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유학 생활에서 느낀 점이나 일본 현지의 상황, 한국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기분 좋은 밤이었다.

다음 날에는 오전부터 동경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며 바쁘게 보냈다.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개설한 도쿄 아이파크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도쿄 아이파크 일정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이번 워크숍의 백미로 소개하기 충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 일본법인 양재혁 대표의 '일본 비즈니스 성공 전략', 나그나로크 제작사인 그라비티를 인수한 경호엔터테인먼트 모리시타 대표의 '경호엔터테인먼트의 경영전략' 설명회, 일본 주식 보유자 자산랭킹 10위 시게타 회장의 '히카리 통신과 벤처 캐피탈사업 설명회', 마지막으로 아도웨이즈의 오카무라 대표의 '모바일과 인터넷을 결합한 제휴 광고 비즈니스 모델 설명회' 까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이름만 그럴듯한 행사가 아닌, 실용적이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번 해외워크숍에서 훌륭한 경험을 주었다. 일정상 보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과 같은 시간들이 매우 아쉬웠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벤처CEO아카데미가 중소기업들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처음 아카데미에 참여할 때는 그리 큰 기대를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특히 이번 일본워크숍을 경험하면서 벤처기업협회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고, 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계속적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교육받는 가운데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 자기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일본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